

S-Oil 울산공장 화재로 가동 중단

제2정유공장 제품 이송펌프 기름 유출로 ... 최소 5-6시간 가동중단

S-Oil 울산공장1에서 11월1일 오후 1시45분경 화재가 발생해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S-Oil 정유공장 가운데 제2정유공장의 제품 이송펌프에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불이나 자체 소방대가 10분만에 진화했다.

그러나 사고로 제2정유공장의 가동이 중단됐고 불완전연소 발생으로 공장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한동안 수십m나 치솟아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했다.

S-Oil 관계자는 “회사로 공급되는 15만4000V의 고압선에서 순간정전이 일어나면서 제품 이송펌프 유류가 역류하면서 유출돼 화재가 발했었으며, 공장의 안정을 위해 제2정유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제2정유공장은 20만배럴의 원유를 정제하고 있으나 화재로 공장 가동이 최소한 5-6시간 중단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S-Oil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며, S-Oil은 이송펌프 보수 등 공장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01>